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이창우(가운데)는 지난해 코로사와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웰컴론이 코로사의 지원을 중단한 후 팀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임의탈퇴 선수가 됐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 그는 지금 실업자다. 평생 핸드볼만 보고 살아온 그를 누가 그라운드 밖으로 내몰았을까. 스포츠동아 DB

# 코로사서 임의탈퇴...이창우의 한숨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지난해 코로사와 FA 5년계약 체결 스폰서가 손 떠서 재정난에 빠져 동료들 외면할 수 없어 팀 복귀 불능 "둘째딸도 태어났는데... 가슴 아프다"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이창우(32)는 지난해 12월 12일 둘째 아이(딸)를 얻었다. 그는 요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평생 핸드볼만 보고 살아왔는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을까.

● **새해 아침 날아든 임의탈퇴 통보**  
이창우는 2014년 코로사와 프리에이전트(FA) 5년 계약을 했다. 야구, 축구처럼

대박 계약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핸드볼을 오래하고 싶어 장기계약에 응했다. 계약금은 없었고 사실상 2+3계약이었다. 즉 2년간 연봉 6500만원을 받되 성적이 좋으면 코로사가 이후 3년간의 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이었다. 3년 옵션이 보장되면 연봉 8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입단 첫해부터 먹튀가 안 되게 최선을 다했고, 코로사는 2014년 두산의 아성을 깨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4년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코로사의 스폰서였던 웰컴론이 핸드볼에 손을 떼면서 짧은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정난에 처하자 장인의 전 감독과 12명의 선수들은 "코로사 정명현 사장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맞서 코로사 정명현 사장은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들, 대학졸업생 등을 끌어 모아 9명으로 팀을 꾸

렸다. 이에 따라 코로사로 돌아갈 퇴로조차 막힌 기존 선수들의 분노는 더 심해졌다. 반면 계약기간이 보장된 이창우는 코로사에서 밀려난 장인의 전 감독을 포함한 11명의 선수들과 함께 정 사장에 맞서 '장외투쟁' 할 이유가 적었다. 팀에 남아서 운동을 하면 2015년 연봉 6500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코로사의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코로사 정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불러도 응하지 않으니 계약이 남은 이창우, 용민호(군인대)는 임의탈퇴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코로사가 2일 두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창우는 2015년 새해 실업자 신분이 됐다.

● **"핸드볼 할 팔자가 아니었나 봐요"**

이창우는 "나 혼자 핸드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비록 1년도 같이 안 된 팀원들이지만 동료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는 그저 남편 걱정일 뿐이지만 새로 태어난 딸 생각을 하면 그도 맘안이 교차한다. 전국체전이 끝난 뒤 운동을 못했으니 두 달 이상 이미 공백이다. 1월 카타르 세계선수권대회 역시 불참이 확정돼 대표팀에 갈 일도 없다. 그는 "근육이 풀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 사장이 복귀를 바라고 임의탈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코로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사로 안 돌아가면 은퇴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괴로움 속에 그는 "핸드볼 할 팔자가 아니었나보다"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 정다래 은퇴선언 "제2의 정다래 키워보고 싶다"

선수생활 내내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 자신의 이름을 딴 수영교실서 새 인생

'수영 요정' 정다래(24)가 전격적으로 은퇴한다. 조만간 자신의 이름을 딴 수영교실을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다래는 지난 연말을 끝으로 경남체육회와의 계약기간을 마쳤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만 24세. 아직은 충분히 선수생활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시선도 존재했다. 전국체전

등 국내대회 위주로 현역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정다래는 깨끗하게 은퇴를 택했다. 무엇보다 부상 후유증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수생활 내내 허리디스크, 오른쪽 무릎 연골·왼쪽 어깨 통증 등과 싸웠다. 결국 지난해 10월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이후 선수생활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정다래는 전남 여수 구봉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수영을 시작했고, 5학년 때부터 전문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



이던 그녀는 2010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스타'로 떠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여자 평영 200m 결선에서 2분25초02의 기록으로 우승한 것이다. 한국 수영 역사상 남녀를 통틀어 아시안게임 평영 금메달리스트는 정다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실력은 물론이고 귀여운 외모, 개성 있는 화보까지 갖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정다래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진다. 힘든 훈련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이어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

때문에 웃으면서 운동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후배들은 꿈을 크게 갖고 즐기면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선수 이후 제2의 인생은 유소년 지도자로 시작할 계획이다. 조만간 서울 아현동에 '정다래 수영교실'도 문을 연다. "많은 어린이들이 수영을 통해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정다래는 "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기대되고 설렌다. 만약 남다른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를 만난다면 '제2의 정다래'로도 키워보고 싶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 박태환, 새 훈련지 물색차 미국으로 출국 2주간 체류...스윙백 캐틀라이나 클럽 등 방문 계획

박태환(26·인천시청·사진)이 새로운 전지 훈련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 씨는 4일 '박태환이 떠나고 함께 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2주간 체류하며 전지훈련을 떠날 수영클럽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0년 1월 호주 출신의 세계적 지도자 마이클 불을 전임지도자로 선임한 이후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불의 클럽에서 훈련을 진행해왔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자유형 100·200·400m), 2011상하이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 금메달, 2012런던 올림픽 자유형 200·400m 은메달 등이 만 5년간 둘이 동행하며 이룬 업적이다. 불과의 계약은 지난 연말로 종료됐다. 박인호 씨는 "최근 호주에 함께 훈련할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다. 또 한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해왔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스윙백 캐틀라이나 클럽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곳은 라이언 록티(31)를 조련한 데이비드 마시 코치가 운영하는 클럽이다. 록티는 만 27세이던 2011년 상하이세계선수권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전성기에 대한 수영계의 통념을 깬 미국의 수영스타다. 박태환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 만 27세가 된다. 박태환 측은 2주간 클럽을 둘러본 뒤 새로운 코치와 훈련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전영희 기자



## 美 PGA도 배상문 주목 군 복무할 경우 시드는?

JGTO선 이동환 시드 유예 사례도...PGA "검토 중"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활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배상문(29)의 거취 문제가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PGA 투어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문 에이 미국 체류에 협난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역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배상문이 9일부터 열리는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GA 투어가 배상문의 병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배상문은 지난해 10월 2014~2015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프라이스닷컴오픈 우승으로 2년간(2016~2017시즌까지) 투어 카드를 더 확보한 상태다. 또 올해 마스터스 등 메이저대회 출전권도 받았다. 그러나 배상문이 군에 입대할 경우 최소 2년 정도 투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군 복무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드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병역 문제와는 다르지만, 선수가 부상 등으로 인해 병가(Medical Exemption)를 신청할 경우 PGA는 동일 기간에 대해 시드를 유예해주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 PGA 투어는 아니지만, 일본프로골프(JPGA) 투어에선 2009년 군에 입대한 이동환(28)에게 시드를 유예해준 적이 있다. 정식 규정에는 없지만, 선수회가 군 제대 후 이동환의 활동을 1년간 보장해주기로 하는 '특별법'을 적용했다. JGTO의 배리로 이동환은 25개월간 군 복무를 한 뒤 2011년 투어로 복귀했다. 국내에선 군 복무 기간 동안 시드를 유예해주고 있다. 시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면 그 기간 만큼 자격을 유예해주고 있다. 배상문은 "군에 입대할 경우 시드 기간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PGA 투어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군 미필자인 배상문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해외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PGA 투어 활동을 위해선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하지만, 병무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30일의 유예기간(불가피한 상황에 적용) 내에 귀국해야 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JGTO 김경태, 신부 정송이씨와 백년가약

2007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2010년 일본프로골프(JPGA) 투어 상금왕을 지낸 김경태(29)가 4일 화족을 밝혔다. 김경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부 정송이씨와 백년가약을 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해왔다. 결혼식에 앞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경태는 "올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2007년 프로로 데뷔한 김경태는 첫해 KPGA 투어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신인상을 모두 거머쥐었다. 2010년 일본으로 옮겨 3승을 거뒀고, 한국인 최초로 JGTO 투어 상금왕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에는 우승 없이 부진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결혼식에는 KPGA 최상호 부회장을 비롯해 허석호, 강지만, 김형성, 김대성, 박상현, 김태훈, 이동환, 김대현, 김도훈, 이상희 등의 동료들이 참석해 축하해줬다. 주영로 기자

## 머레이,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단식 우승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6위 앤디 머레이(28·영국)가 4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테니스복합센터에서 열린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단식 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28·세르비아·세계랭킹 1위)의 기권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고 우승했다. 머레이는 이로써 2009년에 이어 2번째로 이 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2011년부터 이 대회 정상을 지켜온 조코비치는 이날 고열 때문에 결승에 나설 수 없었다.

## NBA 샌안토니오, 워싱턴전 17연승 '천적 임종'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가 4일(한국시간) AT&T 센터에서 벌어진 2014~2015시즌 정규리그 워싱턴과의 홈경기에서 101-92로 이겼다. 샌안토니오는 워싱턴전 17연승을 달리며 천적관계를 유지했다. 워싱턴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승리한 것은 2005년 11월 12일이 마지막이다.